

짝독서프로그램이 대학 신입생의 인성, 자아탄력성, 대학생활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

황은정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The Peer Group Reading Program on Tenacity, Self-Resilience, University Life Adaptation of University Entrants

Eun Jeong Hwang
Department of Nursing, Sehan University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짝독서프로그램이 대학 신입생의 인성, 자아탄력성, 대학생활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연구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실험설계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대상자는 S 대학교 신입생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실험군에게는 짝독서프로그램을, 대조군에게는 교양 프로그램을 각 13주간 제공하였다. 짝독서프로그램은 3~4명 학생으로 각 팀을 구성하여, 팀별 다른 도서를 매주 1권씩 돌아가면서 읽고, 매주 1회 전체 모여서 팀별 독서 감상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Chi-square test와 t-test를 활용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자는 총 73명으로, 실험군 34명, 대조군 39명이 참여하였다. 이 연구결과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 전에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인성, 자아탄력성, 대학생활 적응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재 후에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인성 ($p<.01$), 자아탄력성 ($p=.020$)이 향상되어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 신입생의 인성, 자아탄력성, 대학생활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독서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dentify effects of the peer group reading program (PGRP) on the tenacity, self-resilience, and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of new entrants to the university. This was a non-equivalence control group quasi-experimental research study design. The subjects examined were entrants at the S University. The experimental group was provided the PGRP, and the control group was provided a general program for 13 weeks. The PGRP consisted of three or four students per group. Each group read one book for one week. Subsequently, all students gathered and presented their reading reports and discussed their comments, once a week. Data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 and t-test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both groups. A total of 73 subjects were included in the study: 34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39 in the control group.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groups. Furthermo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both groups before the intervention; however,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improved tenacity ($p<0.01$) and self-resilience ($p=0.020$) after the intervention, which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oth groups. Our results indicate the requirement to develop and apply various reading programs for improving the personality, self-resilience, and college life adaptability of university entrants.

Keywords : Peer Group Reading Program, Tenacity, Self-Resilience, University Life Adaptation, University Entrants

이 논문은 2020년도 세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찍어진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Eun Jeong Hwang(Sehan Univ.)

email: ejhwang@sehan.ac.kr

Received February 19, 2020

Accepted May 8, 2020

Revised April 9, 2020

Published May 31,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교육은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고, 자기 실현을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국가와 인류사회에 기여 하도록 돕는데 교육의 궁극적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1]. 특히, 대학 신입생은 수동적이고 획일적인 고등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갑작스러운 변화와 익숙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대학 신입생의 70%가 첫 학기동안 대학에 온 것을 후회하거나 자퇴할 생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조사되었다[2]. 또한 대학교 입학 초기 낯선 환경과 넘치는 자유로움으로 학교생활에서 항상 불안감과 긴장감을 느낀다고 하였다[3]. 이렇듯 대학생활 초기는 신입생들에게 가장 낯설고 긴장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시기일 것이다. 이 시기를 성공적으로 적응해야 앞으로의 대학생활과 졸업 후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지각, 학과 부적응, 질병, 자퇴로 이어져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4]. 초기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성, 스트레스 대처력, 대학생활 적응력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바람직한 인격 형성은 고등교육법에서 대학교육의 목적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1] 대학교육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는 지속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성은 인간이 도달해야 하는 이상인 인간다운 성품,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규정하거나[5] 자기성찰을 통한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6] 등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Althof와 Berkowitz [7]은 인성을 개인적 가치, 대인적 가치, 사회적 차원의 가치로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여 제시하였다. Shin [8]도 인성을 개인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는데 필요한 아름다운 성품이면서,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까지 포함하여 개인적 가치 뿐 아니라, 대인적, 사회적 가치로 확대하여 개념을 정리하였다. Park과 Huh [9]는 개인적 가치는 모든 인성의 기본단위로 개인이 중심이 되어 발휘되는 인성이며, 대인적 가치는 정의와 선악을 분명히 구별하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사회적 가치는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인성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모두를 배려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품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해 창의적 인성이 강조되고 있다. Pyo, Kim과 Park [10]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내적인 성향, 가치관, 태도, 동기 등을 의미하며, 단지 지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식을 활용하여 현실 속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자기이해 교육, 인성교육, 창의성 교육에 있어 균형 있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스트레스 대처능력은 자아탄력성으로 흔히 측정된다.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이나 상황적 사건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내적 능력으로 불안에 대해 민감성을 낮게 하고 삶에서의 긍정적인 참여를 가능케 하여 문제 해결 과정에서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1].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으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개인의 긍정적인 보호 능력으로서,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자기 확신과 수용이 높고, 적절하게 정서를 표현하며,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높다 하였다[12]. 한편,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속에서 대인관계, 학업, 정서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여러 요구들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라 하였다 [13]. 또한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의 제도적, 물리적, 인적 환경과 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 사이의 일정한 작용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단순히 지식 및 기술 습득이 목적이 아니라 적응성을 갖고 사회적으로 원만하게 스며들 수 있는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였다[14]. Baker과 Siryk [15]은 대학생활적응을 사회적 적응, 학업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 환경적 적응 4가지 측면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대학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인성, 자아탄력성, 대학생활 적응력은 매우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간호학과 신입생들은 1학년부터 빠듯한 학사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다른 학과와 비교하여 행동 영역 인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6]. 특히 간호학과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습수업, 전공과목 수 증가, 국가고시 준비 등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Park과 Han [17]은 아직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저학년 간호학과 학생들이 고학년생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더 높아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탄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스트레스와 감소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입생 때부터 인성, 자아탄력성, 대학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독서를 통한 교육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중요하게 지속되어 왔으며, 진리 탐구 뿐 아니라 독서를 통해 깊게 사유하며 정서와 가치관을 고양시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18]. 특히 인성교육이 자기이해와 수용의 과정으로,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은 자기실현을 도와주고 자율성을 신장시켜 주며, 자기이해를 지원해 줌으로써 매우 효과적이다 하였다[18]. 또한 독서는 인간과 세상을 향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독자는 그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삶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였다[19]. 독서는 독자들에게 기대하는 목표를 끊임없이 지향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목표를 명확하게 해준다[20]. 특히 그룹을 통한 독서활동은 독서 자료를 선정하고 이를 읽는 후에 토론이나 역할놀이,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자신들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통찰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다 하였다[20]. 또한 또래들과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내가 겪는 문제가 나만 겪은 것이 아닌 친구들도 겪을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심리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공유할 수 있다 하였다[21]. 특히 자신의 문제와 비슷한 경우의 독서를 선택하여 읽는 것은 다른 독서 전후의 활동을 하지 않아도 학생이 책과 동일시하며 상호작용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자신만의 긍정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게 된다 하였다[22].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대처법,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Flint [23]은 그룹 독서방법 중 하나인 짝독서 방법을 제안하였다. 짝 독서는 '두 명 또는 세 명의 학생이 하나의 책을 역할을 바꾸어가면서 함께 읽고 토의하는 독서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23]. 짝 독서는 대화하면서 책을 읽는 방법이며, 상호작용에 효과적이며, 이런 소통과 교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교섭을 통해 자신을 키워가며 세상을 확장해 나간다고 하였다[24]. 짝 독서를 통해 학생들은 독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사회성이 성장하여 사회 및 정서적으로 발전하여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 하였다[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짝독서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대학 신입생의 인성, 자아탄력성, 대학생활적응도를 확인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대부분 연구가 초등학생 등 어린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제한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이야기의 의미를 자신의 삶과 연관 짓는 독자반응이 증가한다고 한다[25].

따라서 짝독서프로그램은 대학생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짝독서프로그램이 인성, 자아탄력성, 대학생활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1.2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짝독서프로그램이 대학 신입생의 인성, 자아탄력성, 대학생활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대학생의 인성, 자아탄력성, 대학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방법

2.1.1 연구설계

이 연구는 S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여 짝독서프로그램이 인성, 자아탄력성, 대학생활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실험설계연구이다.

2.1.2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이 연구의 대상자는 J 지역에 소재한 S 대학교 간호학과 신입생 중 A반 35명과 B반 40명으로 총 75명을 대상으로 일차 선정하였다. 연구가 진행되기 전에 대상자들에게 이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참여하는 것을 동의 받은 후 진행하였다. 짝독서프로그램은 총 13주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첫 주차에 동의를 받고 사전조사를 실시 한 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 후에 2주차부터 13주차까지 짝독서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마지막 13주차에 프로그램 마무리와 사후조사가 진행되었다.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자료 수집은 담당교수가 없는 장소에서 조교가 수행하였다. 일차 대상자 75명 중 설문지 문항 답을 누락한 2명을 제외한 후 실험군 34명, 대조군 39명으로 총 73명이 최종 참여하였다. 이 연구는 G*power 3.0버전을 이용하여 t-test (양측검정)에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를 구한 결과, effect size=0.8, 유의수준(α)=0.05, 검정력(1- β)=95%로 설정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표본크기는 총 42명으로 산출되었다[26]. 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자 수는 최소 표본크기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3 연구 도구

2.1.3.1 작독서프로그램

이 연구에서의 작독서프로그램은 대학 신입생의 인성, 자아탄력성, 대학생활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자가 고안하였다. 팀 구성은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청소년 독서프로그램에 11명까지도 구성되었다[27]. 팀 구성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어떤 구성이든 능력차이의 간격을 서로 도와 주며 메울 수 있는 동질 집단이 효과적이라 하였다[28].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활발한 상호작용과 서로 간의 적응을 도모하고자 팀 구성은 친한 학생들끼리 3~4명으로 자유롭게 구성하게 하였다. 작 독서의 책 선정방법

은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끌 수 있도록 난이도를 고려하여 교사가 1차 추천 후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29]. 이에 도서 선정은 연구자가 선정해 준 지정도서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정한 자유 도서를 번갈아 가며 하였다. 지정도서는 교수자가 한국 근 대단편소설 50개와 세계명작도서 50개를 제시하여 팀 간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1주일에 1권씩 지정도서와 자유 도서를 번갈아가며 1권씩 읽고 매우 수요일에 반응기록 내용과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작독서프로그램 지도교수는 작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대상자들에게 사전 교육시키고 팀마다 팀장을 정하여서 원활한 진행상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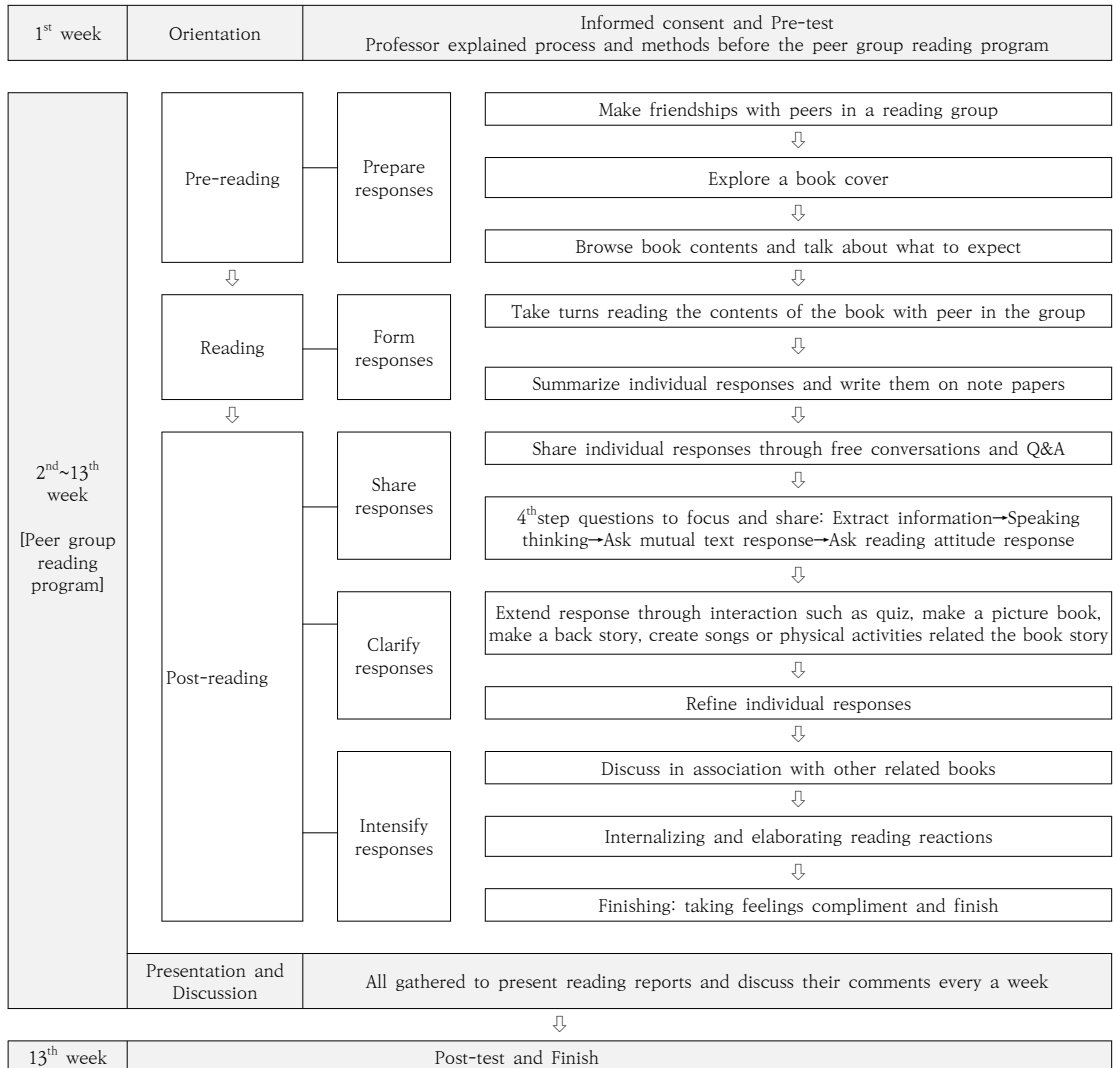


Fig 1. The peer group reading program process

확인하였다. 짝독서프로그램 진행 과정은 Fig. 1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독서과정은 3단계, 즉 '읽기 전(pre-reading) 단계', '읽기 중(reading) 단계', '읽기 후(post-reading) 단계'로 진행되었다. '읽기 전 단계'는 반응 준비하기 단계로, 친구들과 친해지는 활동하기, 입을 책 표지 살피기, 예상되는 책의 내용에 대해 얘기하기로 진행하였다. 이 단계는 짝과의 긍정적 인식을 구축하기 위한 만남을 준비하고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 '읽기 중 단계'는 반응형성하기 단계로, 본격적으로 친구들과 번갈아가며 책 읽기, 노트에 각자의 반응 요약하고 기록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이 때 각 구성원이 책의 한 문단씩 교대로 읽는다. Owocki와 Goodman [30]은 책을 읽을 때 역할을 교대하는 것이 서로의 참여도를 높이고 주의를 집중시키며, 서로간의 돕는 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단계는 자신의 생각을 성찰하고, 짝과의 깊이 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읽기 후 단계'는 다시 3단계, 즉 '각자의 반응 공유하기', '반응 명확히 하기', '반응 심화하기' 단계로 세분화되었다. '각자의 반응 공유하기'에서는 자유롭게 대화하거나 질문을 통해 개인 반응을 공유하고, 초점화시켜 공유하기로 진행하였다. 이 단계는 짝과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여 긍정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초점화시켜 공유하기는 4단계 질문, 즉 읽은 책 내용 중에서 일부 정보를 추출하여, 생각과 느낌을 말하고, 서로 내용에 대해 반응을 말하고, 서로의 독서태도에 대한 반응을 공유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초점화한 한 권의 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번 읽어 책에 대해 깊이 이해하여 단순히 책의 내용을 읽는 정보 추출이 아닌 작품에 대해 반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1]. '반응 명확히 하기'에서는 독서퀴즈 책 만들기, 내용 요약하기, 만화책 만들기, 뒷이야기 꾸미기, 관련 노래 만들기, 신체활동 하기 등으로 진행하고, 자신의 반응을 정리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반응 심화하기'는 다른 작품과 연관시켜 얘기하기, 소감, 서로 칭찬하기 등으로 마무리를 한다. 팀 당 매주 1권씩 읽은 도서에 대한 감상문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매주 수요일에 전체가 모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짝독서프로그램은 2019년 1학기 15주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총 13주간 진행되었다. 대조군은 또 다른 교수에 의해 적성검사, 진로 탐색으로 구성된 교양수업이 제공되었다. 연구수행 기간은 2019년 3월에서 6월까지였다.

2.1.3.2 대학 신입생의 인성

이 연구에서 대상자의 인성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도구는 Park과 Huh [9]가 개발한 청소년용 통합성 인성 척도이다. 이는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신입생에게도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제로 Yoo [32]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도구 사용과 관련하여 개발자로부터 승인을 얻었다. 이 도구는 개인적 가치, 대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창의적 인성 4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적 가치는 개인 수준에서 검토되는 인성으로 자아확립, 긍정적 생활 태도, 심미적 소양, 도덕적 책임의식, 도덕적 판단력 등으로 구성되었다. 대인적 가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타인의 이해와 동정, 용서와 관용, 배려와 협력, 존중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가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소속된 집단이나 사회 구성원을 배려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품성으로 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공동선의 추구, 세계 시민의식으로 구성되었다. 창의적 인성은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팀을 리드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으로 창의적 성향, 의사결정력, 조직력, 과제 책임감, 갈등조정, 추진력, 팀워크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별 세부문항 수는 개인적 가치는 11문항, 대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는 각 12문항, 창의적 인성은 14문항으로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Likert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총합 점수는 개인적 가치 55점, 대인적 가치 60점, 사회적 가치 60점, 창의적 인성 7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인성이 좋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개인적 가치 Cronbach's α =0.82, 대인적 가치는 Cronbach's α =0.83, 사회적 가치는 Cronbach's α =0.85, 창의적 인성은 Cronbach's α =0.84이었으며, 전체적으로 대학생의 인성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0.86로 나타났다.

2.1.3.3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이 연구에서 활용한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측정도구는 Block과 Kremen [11]이 개발한 Ego Resilience Scale (ER)을 Yoo와 Sim [33]이 변안한 도구를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이 도구 사용에 대해 번안자로부터 승인을 얻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도구는 대인관계 4문항, 호기심 4문항, 감정통제 4문항, 활력 4문항, 낙관성 4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총합 점수는 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0.76$ 이었으며, Yoo와 Sim [3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67$ 이었으며 이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88$ 로 나타났다.

2.1.3.4 대학생활 적응도

이 연구에서 활용된 대학생활 적응도 측정도구는 Baker과 Siryk [15]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척도(SACQ: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를 Hyun [34]이 번안한 도구를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학업적응 10문항, 사회적응 10문항, 개인정서적응 5문항, 대학환경 적응 6문항으로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총합 점수는 15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도는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0.94$ 이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92$ 로

나타났다.

2.1.4 자료 분석방법

이 연구의 자료는 IBM SPS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이 연구대상자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동질성 비교는 Chi-square test, t-test, ANOVA를 활용하였다.
- 2) 인성, 자아탄력성, 대학생활 적응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3) 실험군과 대조군의 작독서프로그램 전과 후 인성, 자아탄력성, 대학생활 적응도 간의 차이는 Chi-square test와 t-test로 비교하였다.

2.1.5 윤리적 고려

이 연구는 수행하기 전에 연구자가 소속한 S대학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IRB (SH-IRB 2019-30) 심의를 거쳤다.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 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의사를 철회해도 가능함을 설명하고 본인의 동의를 득한 후 자료가 수집되었다.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수집되었으

Table 1. Homeostasi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Variables	Categories	Experimental group (n=34)	Control group (n=39)	t or X^2	p
Gender	Male	12(35.3)	17(43.6)	0.39	.632
	Female	22(64.7)	22(56.4)		
Age (year)	18-19	30(88.2)	30(76.9)	2.00	.435
	20-21	4(11.8)	8(20.6)		
	≥ 22	0(0.0)	1(2.5)		
	M±SD	18.38±1.63	18.95±1.05	-1.78	.079
Type of residence	Dormitory	18(52.9)	31(79.6)	7.68	.053
	Living with parents	14(41.2)	6(15.4)		
	Living alone	2(5.9)	1(2.5)		
	Others	0(0.0)	1(2.5)		
Religion	Christian	7(20.6)	10(25.7)	1.06	.840
	Buddhism	2(5.9)	2(5.1)		
	Catholic	5(14.7)	3(7.7)		
	No religion	20(58.8)	24(61.5)		
Reading volumes in last year	0	4(11.8)	8(20.6)	3.34	.342
	1-5	18(52.9)	24(61.5)		
	6-10	8(23.5)	4(10.2)		
	≥ 11	4(11.8)	3(7.7)		
Reading fields in last year	Novel	24(80.0)	23(74.2)	8.24	.144
	Essay	2(6.7)	4(12.9)		
	Biography	1(3.3)	0(0.0)		
	Travel books	0(0.0)	3(9.7)		
	Self-development books	2(6.7)	0(0.0)		
Others	1(3.3)	1(3.2)			

† No response were excluded

‡ Fisher's exact test

Table 2. Pearson correlation of tenacity, self-resilience,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Variables	Personal value	Interpersonal value	Social value	Creative personality	Self-resilience	University life adaptation
Personal value	1					
Interpersonal value	.75***	1				
Social value	.75***	.80***	1			
Creative personality	.73***	.71***	.78***	1		
Self-resilience	.72***	.76***	.84***	.85***	1	
University life adaptation	.53***	.46***	.57***	.65***	.63***	1

*** $p < .001$

Table 3. Comparison of pretest and posttest between tenacity, self-resilience,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Variables (total score)		Classification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t(p)
Tenacity	Personal value (55)	Pre-test	38.45±3.60	38.81±4.83	-0.34 (.737)
		Post-test	40.85±5.09	37.78±4.50	2.76 (.007)
	Interpersonal value (60)	Pre-test	47.00±4.87	47.32±4.02	-0.33 (.742)
		Post-test	47.24±5.58	42.48±6.18	3.45 (.001)
	Social value (60)	Pre-test	43.62±4.14	43.30±4.56	0.30 (.767)
		Post-test	45.91±5.65	41.33±5.68	3.47 (.001)
Creative personality (70)	Pre-test	47.90±5.93	47.24±5.15	0.48 (.634)	
	Post-test	51.38±6.56	47.40±6.20	2.68 (.009)	
Self-resilience (100)		Pre-test	74.55±7.70	73.49±7.85	0.55 (.583)
		Post-test	76.62±9.51	71.30±9.57	2.39 (.020)
University life adaptation (155)		Pre-test	104.59±11.34	103.43±8.04	0.48 (.631)
		Post-test	106.12±11.03	102.68±12.03	1.28 (.207)

† No response were excluded

‡ Fisher's exact test

며,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해주었다. 일반적 특성 자료는 연구에 꼭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수집되었다. 연구종료 후 자료는 분쇄기로 폐기하였다. 연구에서의 짝독서프로그램은 S 대학의 비교과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대상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였다.

2.2 연구결과

2.2.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교

이 연구의 대상자는 총 73명으로, 실험군 34명, 대조군 39명이었다. 이 연구결과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1에서 보여주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성별로는 실험군이 남자 12명(35.3%), 여자 22명(64.7%)이 참여하였고, 대조군에는 남자 17명(43.6%), 여자 22명(56.4%)이 참여하였다. 평균연령은 실험군이 18.38세(±1.63), 대조군이 18.95세(±1.05)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기숙사 18명(52.9%), 31명(79.6%)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교가 실험군 20명(58.8%), 대조군 24명(61.5%)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1년간 읽은 도서량은 1~5권이

실험군 18명(52.9%), 대조군 24명(61.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읽지 않았다고 답한 대상자는 실험군 4명(11.8%), 대조군 8명(20.6%)이었다. 책을 읽었다고 답한 대상자 중 독서분야는 소설이 실험군 24명(80.0%), 대조군 23명(74.2%)으로 가장 많았다.

2.2.2 인성, 자아탄력성, 대학생활 적응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이 연구에서 개인적 가치, 대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창의적 인성, 자아탄력성, 대학생활 적응도 간에 Pearson correlation 분석 결과는 표 2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개인적 가치, 대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창의적 인성, 자아탄력성, 대학생활 적응도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2.2.3 중재 전과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성, 자아탄력성, 대학생활 적응도 비교

이 연구에서 짝독서프로그램 제공 전과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성, 자아탄력성, 대학생활 적응도 간의 차이는 표 3에서 보여주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인성에서

개인적 가치, 대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창의적 인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모두 중재 전에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재 후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향상되어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개인적 가치는 중재 전 실험군이 38.45점(±3.60), 대조군이 38.81점(±4.83)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중재 후 실험군은 40.85점(±5.09)으로 향상되었으나 대조군 37.78점(±4.50)으로 감소하여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76, p=.007$). 대인적 가치는 중재 전 실험군이 47.00점(±4.87), 대조군이 47.32점(±4.02)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중재 후 실험군은 47.24점(±5.58)으로 약간 향상하였으나 대조군 42.48점(±6.18)으로 감소하여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3.45, p=.001$). 사회적 가치는 중재 전 실험군이 43.62점(±4.14), 대조군이 43.30점(±4.56)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중재 후 실험군은 45.91점(±5.65)으로 향상하였으나 대조군 41.33점(±5.68)으로 감소하여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3.47, p=.001$). 창의적 인성은 중재 전 실험군이 47.90점(±5.93), 대조군이 47.24점(±5.15)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중재 후 실험군은 51.38점(±6.56)으로 향상되었으나 대조군 47.40점(±6.20)으로 감소하여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68, p=.009$). 자아탄력성은 중재 전 실험군이 74.55점(±7.70), 대조군이 73.49점(±7.85)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중재 후 실험군은 76.62점(±9.51)으로 향상되었으나 대조군 71.30점(±9.57)으로 감소하여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39, p=.020$). 대학생활 적응도는 실험군이 중재 후 점수가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3 논의

이 연구는 짜독서프로그램이 대학신입생의 인성, 자아탄력성, 대학생활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결과에서 인성, 자아탄력성, 대학생활 적응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ark과 Han [17]의 간호 대학생은 교우관계,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고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Sim과 Bang [16]의 간호대학생의 인성과 대인관계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 연구결과, 중재 후 대조군은 개인적 가치, 대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자아탄력성이 감소한 반면에, 실험군

은 증가하여, 짜독서프로그램이 대학 신입생들의 인성,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29]의 짜독서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성찰과 계발역량이 향상되고 상호교섭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짜독서프로그램은 반응을 형성하고, 공유하는 환경으로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정서적 소통을 바탕으로 공유하여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였다 [29]. 또한 Han과 Park [20]의 소규모 독서클럽활동이 대상자들의 성찰과 서로의 성숙을 유의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일관성을 보였다. Yang [35]는 독서 감상문 쓰기와 발표를 통해 학생들은 독서의 심미적 경험을 높이고, 작가의 숨은 의도를 찾고 글의 내용을 재해석하는 능동적 의미 구성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하였다. 이를 통해 짜독서프로그램은 자기성찰과 계발을 유도함으로써 개인적 가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룹 활동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연구결과에서 창의적 인성은 사후에서 두 집단 모두 증가하였지만, 사전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실험군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yo, Kim과 Park [10]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개인 활동에 비해 그룹 활동이 창의성 개발에 더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으며, 집단 활동과정을 통해 창의적 관점이 습득된다고 하여 이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Ministry of Education [18]은 학생들의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서 독서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도모하고자 하여 독서교육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독서프로그램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관련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Tak과 Lee [36]은 독서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의 하위 영역 중 긍정사고, 문제해결력, 감정조절, 친밀행동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한 연구결과와 이 연구결과는 일치하였다. 또한 Min [27]의 청소년 대상 독서프로그램이 대인관계 능력과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한 연구결과와 이 연구결과는 일치하였다.

이 연구결과에서 대학생활 적응도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im [3]은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보를 나누주는 선배와 동기들, 관계형성 등 상호작용 측면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Kim [37]은 대학생활에 잘 적응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의사소통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의사소통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짝독서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대학생활 적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신입생으로 서로 서먹한 사이에서 진행되다 보니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대학생활 적응도에서 유의한 변화를 초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im [29]는 짝독서프로그램이 개인 독서가 아니라 다른 학생과 함께 독서하고 반응을 공유함으로써 타인과 소통하며 상호작용에 긍정적 인식을 가져왔다고 연구결과에서 보여주어 짝독서프로그램이 상호작용에 긍정적 결과를 초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Kim [38]은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비장애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사회적 거리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였다.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서 교육과 지원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 신입생을 위한 전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39]. 하지만 간호 대학생들은 과중한 학사일정으로 다양한 교내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생의 인성, 자아탄력성, 대학생활 적응에 다양한 여가 및 교내활동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40]. 따라서 대학신입생의 인성, 대인관계, 대학생 활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이 연구는 S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여 짝독서프로그램이 인성, 자아탄력성,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 연구결과에서 실험군의 인성 즉, 개인적 가치, 대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창의적 인성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학년 비교가 어렵고, 대상자의 독서 관련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제3변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연구결과와 일반화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추후 과제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른 짝독서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시계열적 연구와 학년 간 짝독서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짝독서프로그램의 학과 간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Higher Education Act [Internet]. Ministry of Education, 2020 [cited 2020 January 14]. Available From: www.mohw.go.kr (accessed Jan. 14, 2020)
- [2] Y. J. Oh, "An analytic study on the university life experiences of freshman",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Vol.25, No.25, pp.143-166, Jul. 2006.
- [3] Y. H. Lim, *A Qualitative Study on Experience and Perspective of Freshman Living in a Dormitory on Adjusting to College Life*,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p.1-73, 2018.
- [4] M. J. Park, D. W. Choi, "The convergence effect of career education program for freshman of nursing department on learning motivation, college life adaptation and self-effica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4, pp.339-349, Apr.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4.339>
- [5] S. B. Kang, E. S. Park, G. S. Kim, S. J. Song, Y. K. Chung, et al., "A foundational study for the vision of education for the human nature for 21st century",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Vol.30, No.30, pp.1-38, Mar. 2008.
- [6] I. J. Choi, "A study on the understanding and reception self in literary reading for the humanist education", *Reading Research*, Vo.41, No.41, pp.93-118, Nov. 2016. DOI: <http://doi.org/10.17095/JRR.2016.41.4>
- [7] W. Althof, M. W. Berkowitz, "Moral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their relationship and roles in citizenship education",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35, No.4, pp.495-518, Nov. 2006. DOI: <https://doi.org/10.1080/03057240601012204>
- [8] J. H. Shin, *Theory and Practice of Personality Education*, p.73, Kyoyookgwahaksa, 2016, pp.1-90
- [9] S. M. Park, S. H. Huh, "A study for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humanity scale for adolescen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1, No.3, pp.35-47, Aug. 2012.
- [10] J. M. Pyo, N. R. Kim, H. R. Park, "Attitude and perception change according to experience of creativity promotion cla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9, No.6, pp.397-412, Dec. 2018. DOI: <http://dx.doi.org/10.22143/HSS21.9.6.28>
- [11] J. Block,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2, pp. 349-361, Feb. 1996. DOI: <http://doi.org/10.1037/0022-3514.70.2.349>
- [12] J. H. Park, J. M. Park, "The effects of children's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exam anxiety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31, No. 6, pp. 125-134, Nov.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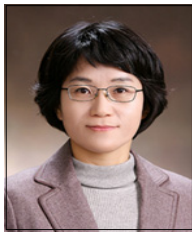
- [13] H. R. Lee, "The psychological and academic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the effects of resilience factors and risks", *Studies on Korean Youth*, Vol.20, No.3, pp.115-139, Nov. 2009.
- [14] H. J. Kwon,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and scholastic achievement with the university environment climate perception.*,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p.24-26, 2007.
- [15] R. W. Baker, B. Si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1, No.2, pp.179-189, Apr. 1984.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31.2.179>
- [16] S. S. Sim, M. R. Ba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2, pp.634-642, Dec.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2.634>
- [17] S. H. Park, S. H. Han,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8, pp.517-526, Aug.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8.517>
- [18] The Ministry of Education, Five-year Comprehensive Plan for Personality Education (2016-2020), Government Report, Ministry of Education, Korea, pp.27-28.
- [19] S. H. Kim, *Reading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Character Competency*, PhD dissertation, The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pp.1-192, 2018.
- [20] C. W. Han, Y. M. Park, "The instruction of personality through book club activities", *Journal of Reading Research*, Vol.9, No.9, pp.331-352, Jun. 2003.
- [21] O. S. Bea,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Program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elf-esteem*,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Korea, pp.1-88, 2007.
- [22] Y. J. Lee,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elf-respecting Reading Program*,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Korea, pp.1-139, 2019.
- [23] T. K. Flint, "Making meaning together: buddy reading in a first grade classroom",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Vol.38, No.4, pp.289-297, Sept. 2010.
DOI: <https://doi.org/10.1007/s10643-010-0418-9>
- [24] G. R. Cheon, "The concept and effects of partner reading", *Journal of Reading Research*, Vol.30, No.30, pp.337-363, Dec. 2013.
- [25] M. G. Martinez, N. L. Roser, *Children's Responses to Literature*, p.1128,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1, pp.643-654
- [26] F. Faul, E. Erdfelder, A-G. Lang,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39, No.2, pp. 175-191, May. 2007.
DOI: <https://doi.org/10.3758/BF03193146>
- [27] K. A. Min, *The Influence of the Youth Group Counseling Program utilizing the Treatment of Bibliotherapy on Ego-Resili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Master's thesis, Hansei University, Korea, p.1-95, 2016.
- [28] D. Ogle, A. Correa-Kovtun, "Supporting English-Language learners and struggling readers in content literacy with the partner reading and content, too routine", *The Reading Teacher*, Vol.63, No.7, Apr. 2010, pp.532-542.
DOI: <https://doi.org/10.1598/RT.63.7.1>
- [29] Y. J. Kim, *The Development of Partner Reading Program for Activating Literary Response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p.1-125, 2017.
- [30] G. Owocoki, Y. Goodman, *Kidwatching: Documenting Children's Literacy Development*, p.46, Heinemann, 2002, pp.1-144
- [31] G. E. Tompkins, *Language Arts: Patterns of Practice* (8th ed). Harlow, Essex: Pearson education Limited, p.306, 2012, pp.1-504
- [32] Y. S. Yoo, *A study on influence of the sejong leadership education on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development*,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ungbuk, Korea, pp.3, 2018.
- [33] S. Y. Yoo, H. W. Sim,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6, No. 4, pp.189-206, Dec. 2002.
- [34] J. W. Hyun,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Evaluative Threat on the Performance of Task*,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p.1-75, 1999.
- [35] A. H. Yang, *A Study on Teaching of Book Report Writing by Application of Anticipation Guides Strategy*, Master's thesis, Kyungin Education University, Incheon, Korea, pp.1-122, 2017.
- [36] S. J. Tak, E. H. Lee, "The effect of bibliotherapy on the ego-resili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Therapist*, Vol.7, No.3, pp.499-517, Jul. 2015.
- [37] M. S. Kim, "Communication edu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collegiate interpersonal skills", *Hanminjok Emunhak*, Vol.73, pp.203-233, Aug. 2016.
- [38] Y. S. Kim, "The effects of reading therapy-based social integration personality program on college students' self-esteem and social sense of distanc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Vol.51, No.1, pp.1-23, Mar. 2012.
- [39] S. Y. Hong, "Need analysis on education for

supporting first-year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14, No.1,
pp.271-295. Mar. 2016.

- [40] H. S. Lee, *Relationships between the Degrees of Class Activities, Out-of-Class Activities, Leisure Activities and the Character Development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p.1-88, 2018.
-

황 은 정(Eun Jeong Hwang)

[정회원]



- 2006년 8월 :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3년 3월 ~ 2010년 4월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 2010년 4월 ~ 2013년 4월 : 국립중앙의료원 선임연구원
- 2015년 3월 ~ 현재 :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공공보건의료, 건강증진